

박 경희(침신대 강사) 호세아서의 인간과 땅

본 연구는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페이스’, 즉 ‘하나님의 고통하시는 사랑’을 탐구하고자 한다. ‘인간과 땅’의 주제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호 2장 4-25[2-23]절과 4장 1-19절을 분석하고자 한다. 중심내용은 하나님과 창조세계를 반영한 인간의 현실과 그 결과로 황폐한 땅에 대한 이해, 인간과 땅의 총체적 죄악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에 대한 긍휼 때문에, 심판을 넘어 새로운 창조를 통한 인간과 땅, 자연세계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해이다.

호세아서의 인간과 땅

박 경희 | 침신대 강사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의 목적은 호세아서 예언에서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정체성 상실, 바알 예배와 다양한 우상 숭배로 오염된 땅이 겪는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페이소스(divine pathos)¹⁾, 하나님의 고통 당하시는 사랑(divine suffering love)에 대한 신학적 이해이다. 연구의 첫 번째 중요 주제는 하나님과 창조 세계를 반영한 인간의

1) 아브라함 헤셸(Abraham Heschel)은 예언서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페이소스(divine pathos)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헤셸의 정의에 따르면, 하나님의 페이소스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빛이다. 하나님은 무감각한 신이 아니라 인간역사의 사건들을 통하여 역사에 관여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할 때 고통과 비애감을 경험하신다. 예언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페이소스를 경험하며 메시지를 전한다. 하나님의 페이소스는 영구적이며 일시적이고, 의미가 분명하고 모호하며, 형이상학적이고 역사적인 통일성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페이소스는 하나님과 인간관계, 창조자와 창조의 상호 의존관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와 그의 백성간의 대화의 사실적인 기본원리이다. 예언자들의 특성은 미래에 대한 통찰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재 페이소스를 간파하는 것이다. A. J. Heschel, *The Prophets*, Vol. 2,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 1962), 11쪽; W. Brueggemann, *Tradition for Crisis*, (Richmond: John Knox Press, 1968), 110-23쪽.

현실과, 그 결과로 인한 황폐한 땅에 대한 관점을 다룬다. 호세아의 예언에서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 파기로 대표된다. 관계 파기의 결과는 인간의 정체성 혼란과, 인간의 존재 장소인 땅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오염되는 것이다. 두 번째 중요 주제는 인간과 땅의 총체적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긍휼 때문에, 심판을 넘어 새로운 창조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해이다. 연구의 중심 본문은 호세아서의 '인간과 땅'이라는 주제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호 2장 4-25[2-23]절과 호 4장 1-19절에 초점을 둔다.

2.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한 인간

호세아서의 인간 이해는 출애굽 전통에서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언약 관계에서 비롯된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하나님의 선택'²⁾이라는 용어로 서술하진 않지만,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은 관계를 암시한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시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형성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정체성³⁾을

2)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선택하다, 고르다'의 의미는 히브리어 **בחר**(바하르)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장들(느 9:7), 이스라엘(신 4:37; 7:6-8; 10:15; 14:2; 시 105:43; 사 14:1; 44:1-2; 겔 20:5), 왕, 특별히 다윗(삼하 6:21; 왕상 8:6; 대하 6:6; 시 78:70; 89:3[4], 34[35], 49[50]), 예배장소(신 12:5, 11, 14, 18, 26; 14:25; 15:20; 16:6-7, 15-16; 17:8, 10; 18:6; 31:11; 수 9:27; 시 132:13; 숙 1:17; 2:16[12]), 제사장(레 16:5, 7; 17:20[5]; 신 18:5; 21:5; 삼상 2:27-28)을 선택할 때 사용되었다. 보편적으로 선택의 의미로 사용된 용어들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קָבַל**(라카/취하다, 택하다, 참조, 출 6:7; 신 4:34; 삼하 7:8), **אָבַד**(카라/부르다, 이름을 부여하다, 참조, 삼상 3:4-21; 사 51:2; 호 11:1), **אָבַד**(하야 리 라암/나에게 속한 백성이 되다, 참조, 레 26:12; 렘 7:23; 11:4; 31:1, 33; 겔 11:20; 37:23, 27), **בָּרַךְ**(아다/알다, 참조, 창 18:19; 암 3:2), **בָּרַךְ**(바달/분리하다, 격리시키다, 참조, 레 20:24; 민 8:14; 16:9; 신 10:8; 왕상 8:53), **בָּרַךְ**(팔리/구분하다, 분류하다, 참조, 출 11:7; 33:16; 시 4:4[3]) 등이 있다. 신명기적 전통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특별히 다윗의 후손에서 왕권 상속(왕상 11:32, 34; 왕하 19:34; 대상 28:4; 시 78:70-71), 레위 지파에서의 제사장직(신 18:5; 21:5; 삼상 2:28; 대상 15:2; 대하 29:11-12), 중심 예배장소로서의 시온 산 예루살렘(신 12:5, 11이하; 14:23이하; 16:2, 6이하; 26:2; 시 78:68-69; 84:5-7; 87:1-3; 132:13-14), 약속의 땅(신 8:10; 11:31; 12:10; 17:14; 26:1; 30:20)으로 대표된다. 이에 대한 연구는 손 석태,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서울:성광문화사, 1991); H. D. Preuss, *Old Testament Theology*, 2 vols.; H. H. Rowley, *The Biblical Doctrine of Election*, (London: Lutterworth Press, 1950); Th. C. Verizen, *Die Erwählung Israels nach dem Alten Testament*, (Zurich: Zwingli-Verlag, 1953)을 참조하라.

3) 일반적으로 구약성서에서 인간이해는 한 개인이 아니라 가부장적 계보에 따른 한 개인이 소속된 가족이며, 지파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민족 공동체이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한 개인의 소속

이해하는 출발점이며 핵심이다. 이스라엘은 야훼에게 거룩한 존재이며, 귀중한 기업과 소유이고, 언약의 백성이다.⁴⁾ 이는 개인주의적 분리 관점에서 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사회 안에서 '전체 공동체'로서 '우리'를 의미한다.⁵⁾ 믿음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야훼의 백성'은 다양한 사회적 구성 요소(가족, 친족, 지파, 언어, 거주지 등)를 포함하며, 무엇보다 종교적 헌신 공동체이다. 따라서 개인의 이해에 있어서도 한 개인보다는 '하나님 백성' 혹은 '이스라엘'로서 대표성을 가진다. 하나님의 선택 조건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보다 우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⁶⁾에 바탕을 둔 유일한 관계(신 7:

은 **בית אב**(베이트 아브/아버지의 집, 가족), **משפחה**(미쉬파하/가족, 가문, 확대가족, 씨족 공동체), **בני ישראל**(베네이 이스라엘/이스라엘의 자녀들), **בית ישראל**(베이트 이스라엘/이스라엘의 집), **אנשי מדינת ישראל**(이쉬 이쉬 미베이트 이스라엘/ 이스라엘 집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직계 혹은 친족공동체 안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개인을 이해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Frank Moore Cross, *From Epic to Canon: History and Literature in Ancient Israel*, (Baltimore/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8), 3-21쪽; J. Joosten, *People and Land in the Holiness Code: An Exegetical Study of the Ideational Framework of the Law in Leviticus 17-26*, (Leiden: E. J. Brill, 1996), 29-92쪽; Christopher Wright, *God's People in God's Land: Family, Land, and Property i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0), 1-114쪽을 참조하라.

- 4) '언약(covenant)'과 '하나님의 선택(divine election),' '야훼 하나님의 백성(the people of YHWH)'의 개념은 성서 전체 메시지를 포함하는 중요 주제로서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클레멘츠(Roland Clements)는 포로이전 예언자들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택에 대한 이해를 분열왕국의 정치적 관점에서 본다. 출 19장 5-6절의 시내 산 언약은 야훼와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선택의 출발이다. 이 선택의 의미는 다윗 왕조에서 한 국가의 영토와 정치적 맥락으로 권위를 가진다. 이시기에 선택의 의미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다윗 왕조'와 야훼의 임재 장소로서 '시온 산' 두 개념으로 발전한다. 분열왕국 이후 다윗과 예루살렘 전통이 북 왕국에 의해 거절되고 시내 산 전통이 정통성을 가진다. 남 왕국 유다에서는 오시아 왕의 종교개혁을 계기로 다시 시내 산 전통이 강조되면서 야훼와 다윗 가문과의 언약과 함께 상호연관성을 갖지만, 북 왕국 종교 전통에서는 시내 산 언약만이 받아들여진다. R. E. Clements, *Prophecy and Covenant*, *Studies in Biblical Theology* 43 (London: SCM Press, 1965), 65-66쪽.
- 5) G. Braulik, O.S.B., *The Theology of Deuteronomy*, trans. Ulrika Lindbald, (Dallas: BIBAL Press, 1994), 135-36쪽. 브라울리크(Braulik)는 출애굽 사건을 야훼가 이끈 사회 질서로서 해방으로 새로운 사회 건설, "하나님의 사회 공동체(the society of God)"로 이해한다. 이 해방과 구속의 역사는 온 인류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 6)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은 이 하나님 사랑을 "이스라엘을 향한 야훼의 피할 수 없는, 본질적인 서약(Yahweh's inescapable, originary commitment to Israel)"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세히브리어 동사, **אהב**(아하브/사랑하다, 좋아하다), **בחר**(바하르/ 선택하다, 고르다), **שקד**(하샤크/ 애착심을 갖다, 사모하다, 사랑하다)의 의미를 통하여 야훼의 사랑(신 7: 8 23: 5; 사 43: 3-4; 렘 31: 3; 호 3: 1; 11: 1), 야훼의 선택(신 7: 6-7; 10: 15; 14: 2; 사 44: 1; 겔 20: 5), 야훼의 마음 결정(신 7: 7; 10: 15)의 서약과정 안에서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를 설명한다. 월터 브루그만, 「구약신

6-8)이다.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흔히 은유(metaphor)적으로 표현되는데, 하나님의 자녀,⁷⁾ 하나님의 아내,⁸⁾ 하나님의 종,⁹⁾ 하나님의 소유 혹은 기업¹⁰⁾으로 묘사된다. 또한 직유(simile)적으로 형상화 한 예를 보면, 진흙,¹¹⁾ 포도원,¹²⁾ 양¹³⁾으로 표현한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윤리적 책임을 동반한 언약과 법 준수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호세아서는 결혼 은유(호 1 - 3장)와 부모 은유(호 11장)를 통해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택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관계 안에서 설명한다.¹⁴⁾ 언약에 의한 결혼 관계 성립은 남편과 아내가 도덕적 삶의 원리를 성립하는 것이며, 윤리적 책임을 실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¹⁵⁾ 그러나 호세아의 예언에서 결혼은 아내의 관계 파기로 인한 남편의 이혼 소송이 제기된다. '야훼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 언약 안에서의 상호 신뢰와 책임에 대한 약속이 파기되고, 아내 이스라엘은 남편 야훼를 배반한다. 야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변절한 모습이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동일한 관계 파기 의미를 내포한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지속적인 사랑과 부모에게 끊임없이 반역하는 자녀의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스라엘은 상속받은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실패

학] (류 호준/류 호영 공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3), 665쪽. 원제는 W. Brueggemann,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Testimony, Dispute, Advocac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7) 출 4: 22; 신 14: 1; 렘 3: 19; 31: 9; 호 11: 1.

8) 호 2: 21-22[19-20]; 렘 2: 1-7; 3: 20; 사 50: 1; 54: 5-6; 겔 16: 23.

9) 레 25: 55; 신 32: 36, 43; 사 41: 8-9; 42: 19; 43: 10; 44: 1-2; 45: 4, 11.

10) 출 34: 9; 삼상 10: 1; 시 28: 9; 33: 12; 74: 2; 78: 62, 71; 94: 5; 106: 5, 40; 렘 12: 7, 8, 10.

11) 렘 18: 1-10; 사 64: 7[8]. 참조, 사 29: 16; 43: 1; 45: 9-13.

12) 사 5; 렘 2: 21.

13) 민 27: 16-17; 시 78: 52-56; 95: 6-7; 사 40: 10-11; 렘 23: 1-2.

14) 결혼 은유를 통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사 54: 4-8; 렘 3: 6-10; 31: 31-32; 겔 16장과 23장에서도 묘사된다. 부모와 자녀 관계의 암시는 신 1: 31; 8: 2, 5; 11: 2; 14: 1; 32: 5, 6; 사 1: 2-9; 30: 1, 9; 43: 1, 6; 45: 11; 63: 8-10, 16; 렘 3: 4-5, 14, 19, 22; 4: 22; 31: 9, 20; 6: 26; 8: 11, 19, 21-22, 23[9: 1, 6]; 14: 17; 말 1: 6; 2: 10을 참조하라.

15) 손 석태, 「이스라엘의 선민사상」, 68쪽. E. J. Adler, "The Background for the Metaphor of Covenant as Marriage in the Hebrew Bible," (PH.D.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90), 43쪽.

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 상실이며, 인간의 정체성 상실을 의미한다.

호세아서에서 야훼와 이스라엘 언약 관계의 파기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은 호 6장 7절과 8장 1절에서 언급한다. 호 6장 7절은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지적한다: “아담에서처럼 그들이 언약을 파기하고 나를 속였다.” 상호 관계에 있어서 개인적인 신뢰가 무너진 것을 의미한다. **בַּיָּמֵינוּ**(바그두 비/나를 속였다)는 상대방을 향하여 배신하며 진실성이 결여된 행동을 의미한다. 앞선 본문(특별히 호 1 - 3장)에서처럼 7절은 결혼 은유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결혼 관계에서 이러한 행동 양식의 특성이 상실되었을 때 결혼 서약은 파기된다. 호 8장 1절은 야훼와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이 공격 위기에 있으므로 경고 나팔을 부르라고 선언한다: “나팔을 네 입에(두라) 독수리처럼(침입자가) 야훼의 집 위에 있다.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기하고 나의 법을 반역했기 때문이다.” **בֵּית יְהוָה**(베이트 아도나이/야훼의 집)는 성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인인 땅의 의미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참조, 호 9: 3, 8, 15). 이스라엘이 토라를 떠나 언약을 파기함으로 인해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외부의 침입에 노출되어 있는 위기 상황임을 시사한다. 하나님을 잊은 삶은 인간의 위기뿐 아니라, 인간 삶의 터전인 땅의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호세아서 예언에서 당시 하나님을 배역한 인간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내용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야훼가 제기하는 법적 논쟁에서 찾을 수 있다. 호 2장 4-15(2-13)절의 결혼 은유는 결혼 서약을 파기한 아내로 인하여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암시한다. 야훼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한다. 결혼은 언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약을 파기한 것은 결혼 관계의 파기를 의미한다: “그는 내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호 2: 4(2)).” 이혼 사유는 아내가 결혼 서약을 저버리고 다른 남자와 간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종교 의식인 바알 숭배에 탐닉하여 야훼를 잊어버

렸음을 시사한다. 야훼가 이스라엘의 ‘주인(바알)’이며 사랑하는 자임을 잊은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잊은 것은 자신의 정체성 또한 상실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호세아서 예언이 출애굽 전통을 강조하며, 야훼와 이스라엘 관계를 강조하는 이유다.

호 4장 1-3절의 법적 논쟁은 인간의 삶의 원리인 법률 조항들이 파기되고, 결과적으로 삶의 터전인 땅이 황폐되었음을 고발한다. 인간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삶의 행동 양식인 **אֱמֶת**(에메트/진실한 신뢰)와 **חֶסֶד**(헤세드/변함없는 충실한 사랑)과 **דַּעַת אֱלֹהִים**(다아트 엘로힘/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파생한 결과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고발한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제사장들을 지목하여 인간의 배역한 모습을 서술한다(호 4: 4-10).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잊었으므로, 하나님도 제사장들을 버리고 그 자녀들을 잊겠다고 선포한다. 제사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파기한 종교 지도자들의 삶은 자신들 뿐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함께 고통을 경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호 4장 11-19절은 1절에서 지적한대로 “진실한 신뢰도 없고, 변함없는 충실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서술한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야훼 하나님을 잊은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언약을 파기한 인간의 모습을 대표하는 언어들로 묘사되는 행동 양식들은 또한 하나님의 페이스스를 암시하므로 회복의 희망을 열어준다.

3. 황폐한 하나님의 땅

하나님 백성에게 땅은 언제나 야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장소이고, 하나님과 함께 한 삶의 기억들로 가득한 곳이며, 하나님께 약속 받은 장소이고, 하나님께 서원을 한 장소로서 이스라엘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증시켜주는 실질적인 뿌리이다.¹⁶⁾

16) 월터 브루그만, 「성경이 말하는 땅-선물, 약속, 도전의 장소」 (전 진원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44-47쪽. 원제는 W. Brueggemann, *The Land: place of gift, promise, and challenge in Biblical faith* (Overtures to Biblical Theolog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2002).

구약성서에서 땅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땅 없는 사람들'로 출발하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땅을 약속 받고, 그의 후손들이 '땅을 소유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¹⁷⁾ 땅의 주인은 야훼이며, 땅을 다스리는 자도 야훼다. 신명기의 가르침과 법은 야훼가 온 땅의 주인이며, 모든 민족들 위의 하나님으로서, '신들 중의 신'이며, 세상의 주권자이며, 다스리는 자임을 선언한다. 야훼가 주신 땅은 야훼의 백성이 안식하는 곳이며(신 12: 9-10), 복 받은 곳이고(신 12: 15), 양 떼와 소 떼가 풍성하고(신 12: 31), 곡식을 위한 충분한 비가 내리고(신 11: 14-15), 성과 도시가 있는(신 13: 12; 16: 5) 곳이다. 이 땅은 야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장소이며, 기업을 허락한 곳이다. '야훼의 약속'으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땅이다.¹⁸⁾ 신 26장 1-11절은 약속의 땅에서 정착과 안식에 대한 하나님 백성의 총체적 고백이다. 땅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야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증시켜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나 땅의 백성이 되려면 야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요구된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하여 땅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하며, 땅의 경작자이자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다.¹⁹⁾ 또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땅을 잃게 될 것이다.²⁰⁾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하는 '경계선의 역할'을 한다.²¹⁾

호세아서의 예언은 땅의 오염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하며(호 1: 2), 호 2장 4-15[2-13]절과 4장 1-3절의 이스라엘을 향한 법적 논쟁은 인간의 반역한 모습과 동일하게 땅의 황폐함도 고발한다. 야훼를 떠나 가

17) 창 12: 1-3, 6-7; 13: 14-17; 15: 7, 18-21; 17: 8; 26: 3-4; 28: 13; 35: 12; 48: 4; 50: 24; 수 21: 43-45.

18) N. C. Habel, *The Land is Mine: Six Biblical Land Ideologies*, (Overtures to Biblical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139-142쪽.

19) 레 18: 28; 35: 34; 신 21: 23; 24: 4; 렘 2: 7; 3: 1, 2, 9; 겔 36: 17, 18; 참조, 왕상 14: 16; 15: 26, 30, 34; 16: 20; 22: 53; 왕하 3: 3; 10: 29.

20) 신 4: 1, 5; 5: 16, 31; 6: 1, 10; 7: 11; 8: 1, 11, 19-20; 11: 22; 12: 1; 17: 14; 18: 9; 19: 1; 27: 3; 30: 16.

21) 장 석정, 「하나님의 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219쪽.

나안 종교를 대표하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 그리고 다른 우상 숭배로 변절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인간의 존재 장소인 땅과 함께 피폐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호세아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땅의 황폐한 모습은 땅을 오염시키는 인간의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종교 의식에서 비롯되며, 토라의 가르침을 떠나 이를 방치한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한 삶은 야훼의 심판을 초래할 것임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אֱרֶץ יְהוָה’ (에레쯔 아도나이/야훼의 땅, 호 9: 3)에 거주하지 못하고, 앗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땅을 암시하는 또 다른 표현들: בֵּית יְהוָה [베이트 아도나이/야훼의 집], 호 8: 1; בֵּית אֱלֹהִים [베이트 엘로힘/하나님의 집], 호 9: 8; בֵּיתִי [베יתי/나의 집], 호 9: 15).

드링카드(J. Drinkard)는 호세아 예언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에서 종교적 의식이 ‘공적 종교’와 ‘대중 종교’로 구별되어 있었음을 주장한다.²²⁾ ‘공적 종교’는 제사장들(특히 예루살렘 제사장 전통을 수행한 종교 지도자들)과 예언자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예배나 제사 의식이 주관되는 종교적 의식을 의미하며, ‘대중 종교’는 공적인 성소가 아닌, 예배하는 자가 선택한 장소에서 예배자를 주체로 수행되었던 종교 의식을 의미한다.²³⁾ 호세아 시대에 ‘대중 종교’의 대표성을 가지는 종교 의식은 바알 예배와 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여신 아세라 숭배를 비롯하여 다양한 우상 숭배 의식들이 있었음을 지적한다.²⁴⁾ 야훼를 떠나 바알 예배와 다른 우상 숭배로의 종교적 변절은 언약 파기로 야기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상실뿐 아니라 땅의 황폐함도 동반한다. 예언자는 지역 산

22) J. F. Drinkard, Jr., "Religious Practices Reflected in the Book of Hosea," *Review & Expositor* 90/2 (Spring 1993), 205쪽. 존 할러데이(J. Holladay)는 지역 산당들에서 행해졌던 다양한 예배의식들을 "국립 비국교도종교('Establishment' and 'Nonconformist' religion)"라고 정의한다. J. S. Halladay, Jr., "Religion in Israel and Judah under the Monarchy: An Explicitly Archaeological Approach," P. D. Miller, Jr./P. D. Hanson/S. Dean McBride (eds.), *Ancient Israelite Relig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266-68쪽.

23) J. F. Drinkard, Jr., "Religious Practices Reflected in the Book of Hosea," 205쪽.

24) 바알 숭배-호 2: 15[13]; 11: 2; 13: 1; 아세라 숭배- 호 4: 12-13. 참조, 샛 6: 25; 왕상 18: 19; 16: 32-33; 17: 16; 왕하 21: 3; 23: 4; 기타 우상 숭배-호 4: 17; 8: 4-6; 10: 1-2; 13: 2. 더글라스 스투어트는(Douglas Stuart)는 "정통야훼신앙은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소수그룹 종교가 되었으며, 유일신론의 야훼 신앙(monotheistic Yahwism)이 아닌 다신론의 종교혼합주의(polytheistic syncretism)가 지배적인 신앙을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D. Stuart, *Hosea-Jonah* (WBC) (Waco: Word Books, Publisher, 1987), 10쪽.

당들이나 제의 기물들 아래서 행해지고 있는 이방인들의 혼합 종교 제사 의식들로 땅은 오염되었고, 그 땅의 정치는 야훼를 떠나 내적으로는 쿠데타가 빈번하고, 외교적으로는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 동맹을 의지하고 있음을 고발한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거친 광야에서 지낸 기간이 야훼의 백성으로서 복된 기간이었다고 회상한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포도송이 같고, 무화과 첫 열매 같은 기쁨이었으나(호 9: 10), 그들이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서 야훼의 풍성한 공급으로 배부르더니 교만하여 야훼를 잊었기 때문이다. 호세아는 땅 소유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야훼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광야 시대의 시련으로 되돌릴 것을 예언한다(호 12: 10[9]). 그러나 광야의 삶을 되돌리는 것은 단순한 심판의 경고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야훼가 주가 되시며 실제적 삶의 공급자임을 알게 하는 희망과 회복을 암시한다(호 2: 16-17[14-15]).

호 2장 4-15(2-13)절의 결혼 은유는 남편 야훼의 이혼 소송에 휘말린 아내 이스라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는 것은 땅의 상실도 동반함을 경고한다. 결혼 의무에 있어서 법적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의식주를 제공해야 한다(참조, 출 21: 10-11).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은 모든 것을 철회할 수 있다. 이혼하지 않고도 남편은 공개적으로 아내의 부도덕성을 고발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수도 있다: “내가 그의 사랑하는 자 앞에서 그의 음란함을 드러낼 것이며, 사람이 내 손에서 그를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호 2: 12[10]) 그를 사랑하는 자가 돕고자 할지라도 법적인 남편을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 능력도 행사할 수 없다. 땅의 주인(바알)이며 땅의 풍성한 소출을 아내에게 제공하는 남편(바알)이라고 의지했던 그가 사랑하는 자는 법적 남편 야훼 앞에 무능한 존재일 뿐이다. 이스라엘은 땅의 소산물이 그 땅의 제공자인 야훼에게서가 아니라, 다른 주인, ‘מֵאֵת אֱלֹהֵי אֲדָמָה’ (메아하베이하/그가 사랑하는 자)에게서 공급된다고 믿고 있다. 실제 공급자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결국 땅의 소산물을 잃을 것이다. 땅의 풍요와 다산의 신은 바알이 아니라 야훼이기 때문이다. 결혼 은유에서 남편과 아내의 의무와 권리를 이행할 것을 서약한 언약을

파기하는 것은 물리적인 소유도 함께 잃는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는 것은 ‘언약의 선물인 땅’ 역시 상실하는 것이다.²⁵⁾ 그 대가는 땅의 소출이 없는 혹독한 결과이다(호 2: 5[3]; 13-14[11-12]).

호 4장 1-3절, 11-14절은 인간의 언약 파기와 땅의 황폐함으로 이어지는 도덕적 통찰력의 상실, 이교 예배 의식으로 오염된 땅의 현실을 고발한다. 법적 논쟁의 핵심은 인간의 범죄로 인한 폭력이 난무하는 땅의 현실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²⁶⁾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

25) 월터 브루그만, 「성경이 말하는 땅」, 186쪽.

26)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호세아 예언의 중요한 신학적 용어이다(2:10[8], 22[20], 4:1, 6: 5-4; 6:3, 6: 8-2; 11:3). **יָדָע** (아다/안다, 이해한다)에 대한 어원이해는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면, 아이크로드(Walther Eichrodt)는 호 2장21-22[19-20]절, 5장 4절, 6장 6절, 10절, 8장 2절, 9절을 바탕으로 결혼관계에서 결혼정절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데서 그 기원을 이해한다. Walther Eichrodt, “The Holy One in Your Midst,” *Interpretation* 15 (1961): 259-73쪽. 허프먼(H. B. Huffmon)은 근동지역에서 조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법적 용어의 배경에서 그 기원이 있음을 주장한다. 그는 **יָדָע** (아다/안다, 이해한다)는 “영주 혹은 종주국(suzerain)”과 “봉신 혹은 속국(vassal)” 관계에서 체결한 법적 규율들을 서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H. B. Huffmon, “The Treaty Background of Hebrew YADA,”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Quarterly* 181 (1961): 31-37쪽. 메이즈(James Mays), 사켄펠트(Katrine Sakenfeld), 스튜어트(John Stuart)는 이 제안을 지지하며, “안다”는 의미는 상호관계에서 봉신에 대한 영주의 주권에 대한 권위와 봉신이 그의 법적인 주권자에게 충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James L. Mays, *Hosea*, (The Old Testament Librar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9), 64쪽; Katharine Doob Sakenfeld, “Love(Old Testament),” *ABD*, Vol. 4 (1992), 373쪽. 볼프(Hans Wolff)는 호세아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사장직 수행의무에서 이해한다. 제사장들은 언약전통 안에서 아훼 예배공동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호 2:22[20]; 4:1, 6: 5-4; 6:3, 6: 8-2; 13-4). 볼프는 호세아의 기본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형성되었는데 이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는 것, 광야생활의 사건들을 아는 것, 땅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것, 언약과 토라를 세우신 것을 아는 것”이다. 제사장들은 이 역사적 사실들을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Hans Wolff, “Wissen um Gott bei Hosea als Urform von Theologie,” *Evangelische Theologie* 12 (1952/1953): 533-54쪽; iedm, *Hosea*, 121쪽. 홀트(Else Kragelund Holt)도 볼프의 이해를 지지한다. Else Kragelund Holt, “**יָדָע אֱלֹהִים** und **יָדָע** im Buche Hosea,” *Scandinavian Journal of the Old Testament* 1 (1987): 87-103쪽. 크로티(Robert Crotty)는 제사의식이 행해지는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원을 이해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면 제사의식은 단순히 기능적 역할일 수밖에 없다. Robert Crotty, “Hosea and The Knowledge of God,” *Australian Biblical Review* 19 (October 1971): 1-16쪽. 메켄지(John McKenzie)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아는 성별된 지식으로 이해한다. John McKenzie, “Knowledge of God in Hosea,” *JBL* 74 (1955): 22-27쪽. 호세아에서 **יָדָע** (아다/안다, 이해한다)는 21회 사용되었는데 (2:10[9], 22[20], 4:1, 6[2회]; 5:3, 4, 9, 15; 6:3[2회], 6: 7:9[2회]; 8:2, 4; 9:7; 11:3; 13:4, 5; 14:10[9]),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피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신실한 관계 안에서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 않는 인간 삶의 현장 -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으로 폭력이 폭력을 부르는 곳 - 땅의 모습이다. 이러한 삶의 현실은 호세아 예언에서 지속해서 지적하는데, לֹא(알라)²⁷⁾는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שָׁחַט(카하쉬)²⁸⁾는 특별히 법정이나 상거래에서 이웃을 거짓으로 속이고 현혹시키는 행위를 지적한다. רָצַח(라짜하)²⁹⁾는 계획적으로 살인하는 행위이다. גָּנַב(가나브)³⁰⁾는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유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נִאֵץ(니아프)³¹⁾는 간음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법에서 절대 금지(apodictic law)의 형식으로 선포된 조항들이다.

저주 금지 - 출 21: 17; 22: 27; 레 19: 14; 20: 9; 신 27: 16

속임수 금지 - 출 23: 1-3, 6-9; 레 19: 11; 신 25: 13-16

살인 금지 - 출 20: 13; 21: 12, 14; 신 27: 24

도둑질 금지 - 출 20: 15; 21: 16; 레 19: 11

간음 금지 - 출 20: 14; 레 20: 10

성결 법전(레 17 - 26)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이교 예배가 행해지는 것은 땅을 오염시키는 범죄 행위로 규정한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땅에서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라 땅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땅이 인간을 거부할 것이다: "... .. 너희가 그것을 더럽힐 때, 그 땅이 너희를 토할 것이다(레 18: 28)." 하나님은 땅에 살고 있는 그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민 35: 34; 호 11: 9). 호세아서의 예언은 인간의 언약 파기로 인한 결과는 인간과 땅 모두 총체적 위기를 초래했음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통한 위기 전환의 가능성을 제시하므로 미래의 희망을 약속한다.

4. 하나님의 페이스, 하나님 사랑: 인간과 땅의 회복

27) BDB, 46쪽. 참조, 호 10: 4.

28) BDB, 471쪽. 참조, 출 23: 1-3, 6-9; 신 25: 13-16; 호 7: 3; 10: 13; 12: 1[11: 12].

29) BDB, 953쪽. 참조, 호 6: 9.

30) BDB, 170쪽. 참조, 출 20: 15.

31) BDB, 610쪽. 참조, 호 2: 4[2]; 3: 1; 4: 13, 14, 15, 18; 7: 4.

호세아 신학의 핵심은 반역한 인간과 오염된 땅에 대한 하나님의 페이스에서 출발한다. 호세아의 예언에서 묘사되는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은 하나님 사랑을 거절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 모색을 암시한다. 하나님의 페이스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 갈등이 있다.³²⁾ 하나님은 사랑과 분노가 복합된 고통을 경험하신다. 결국 하나님은 백성들의 반역을 스스로 끌어안으심으로 죄를 범한 인간과 동일한 고통을 자신 안에서 확인하신다. 이 고통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연민의 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며, 언약을 파기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 당하시는 사랑'의 결정체다. 용서하는 자는 범법자에 대한 연민으로 고통스럽고, 이 고통은 범법자를 향한 속죄의 사랑으로 전환된 것이다.³³⁾ 이 사랑이 하나님과 인간의 파기된 관계를 치유하는 용서를 암시하며 화해의 문을 연다. 고대 근동 지역 사회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순종과 불순종, 상과 벌의 인과응보 관점이 지배적이다.³⁴⁾ 보편적으로 야훼 하나님을 잇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인간에게 분노와 심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분노를 잠재우고 파기된 관계를 끌어안으신다.

호 11장 9절은 인간의 죄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다. 그의 백성에게 잊혀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잊지 않는 사랑으로, '거룩한 자로 그의 백성 가운데 임재' 하신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분노와 사랑 사이의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이룬다. 이는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회복이며, 인간의 정체성과 땅의 창조 질서에 대한 회복이다.

호 2장 16-25(14-23)절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새로운 관계를 창조하는 새 언약을 선포함으로 인간과 땅의 회복을 약속한다. 본문 문학 구조를 여는 'לָקַח'(라켄/그러므로)은 바로 앞서 선포된 심판(호 2:

32) Terence E. Fretheim, *The Suffering of God*, 122쪽.

33) P. S. Fiddes, "The Cross of Hosea Revisited: The meaning of Suffering in the Book of Hosea" *Review & Expositor* 90/2 (Spring 1993), 187쪽.

34) Morton Smith, "The Common Theology of the Ancient Near East," *JBL* 71 (1952): 135-47쪽.

4-15[2-13])에 이어 새로운 전환을 알린다. 인간의 죄를 끌어안으신 하나님은 처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어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다시 그 첫사랑의 장소로 그들을 불러내어 위로하실 것이다. 결혼 은유를 통하여 전개되는 새로운 회복의 약속은 'אִי הָיָה' (바움 하후 /그날)에, 남편 야훼는 그의 아내 이스라엘이 남편을 향하여 새로운 결혼 서약에 응답하도록 하고(호 2: 18[16]), 동물 세계가 새로워지고 땅의 포악이 멈추도록 하고(호 2: 20[18]), 또한 인간과 자연 세계가 조화를 이루고 땅의 소산물들이 풍요와 다산을 가져오는(호 2: 23-24[21-22])

לְפָתַח תִּקְוָה (레페타하 티크바/희망의 문으로) 인도할 것이다. 나아가 야훼의 변함없는 사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새로운 결혼 관계를 약속한다. 이 같은 언약 관계는 קָדָשׁ / קָדָשׁ (째다카/째데크/공의)와 מִשְׁפָּט (미쉬파트/정의), חֶסֶד (헤세드/변함없는 충실한 사랑), רַחֲמִים (라함뎀 /공활히 여김), אֱמוּנָה (에무나/진실함)을 동반한다. 야훼 하나님이 제 공하는 이 가치 기준들 안에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 것이다:

אֵת־יְהוָה אֲדַעַת (베야다테 엘 아도나이/그리고 내가 야훼를 알 것이다, 호 2: 22[20]). קָדָשׁ / קָדָשׁ (째다카/째데크)³⁵⁾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실한 행위,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행동 양식이다. מִשְׁפָּט (미쉬파트)³⁶⁾는 합당한 법적인 결정을 통하여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바른 방향 설정을 의미한다. חֶסֶד (헤세드)³⁷⁾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려 깊고, 친절하며, 변함없는 신실한 태도를 가지는 행동 양식이다. רַחֲמִים (라함뎀)³⁸⁾은 특별히 가난한 자를 공활히 여기는 사랑과 용서를 의미한다.

אֱמוּנָה (에무나)³⁹⁾는 순수와 신실함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성품 묘사에서 지속적인 신실하심을 반영한다. 이 새로운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상호간에 책임과 의무를 동반하며 합당하게 취해져야 하는 행동 양식들이다. 총체적인 상실 위기를 경험한 인간과 땅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내용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한다.

35) BDB, 841-42쪽. 참조, 암 5: 7, 24; 6: 12; 호 10: 12; 시 98: 2.
 36) BDB, 1048쪽. 참조, 암 5: 7, 24; 6: 12; 호 5: 11; 6: 5; 10: 4; 겔 20: 11.
 37) BDB, 338-39쪽. 참조, 창 20: 13; 수 2: 12; 삼상 15: 6; 렬 2: 2; 호 2: 21[19]; 4: 1; 6: 4, 6; 10: 12.
 38) BDB, 933쪽. 참조, 창 43: 30; 출 34: 6; 왕상 3: 26; 시 86: 15; 렬 42: 12; 호 11: 8.
 39) BDB, 53쪽. 참조, 시 37: 3; 89: 25; 92: 3; 98: 3; 사 11: 5; 애 3: 23.

땅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처음 창조로의 복귀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삶의 회복을 노래한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는 삶의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다. 호세아서에서 땅은 인간의 물리적 소유 개념이 아니라, 'אֲדָמָה' (에레쯔 아도나이/야훼 하나님의 땅)에 대한 본질 이해이며, 인간이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장소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경제 질서에 따라 소유와 분배가 이루어지는 희년의 아름다운 전통이 지켜져야 하는 인간 공동의 삶의 터전이다.⁴⁰⁾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으로 오염된 땅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새로운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장소로 변화시키신다(호 2: 20[18], 23-24 [21-22]). 인간 또한 그 땅에서 죄로 인해 고통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통을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므로,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회복하는 새 언약의 대상이다. 야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인간 또한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다.

5. 나가는 말

호세아서 예언의 인간과 땅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언약 파기로 인한 정체성 상실과 그로 인하여 파생된 땅의 황폐함을 지적한다. 이러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서술하는 중심 본문 2장 4-25(2-23)절과 4장 1-19절은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법적 논쟁을 제기함으로 인간과 땅의 총체적 타락을 고발한다. 그 내용은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파생된 토라에 대한 반역과 언약 파기, 이교 예배로 오염된 땅이다. 언약 파기와 땅의 오염은 호세아서 전체를 아우르는 인간과 땅의 이해에 대한 예언자의 기본 주제이다. 호세아 예언의 대부분이 이러한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변절을 고발하고 있지만, 본문의 절정은 인간의 죄와 땅의 황폐함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페이스, 하나님 사랑에 있다. 호세아가 그토록 조형적이고 회화적인 은유나 직유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인

40) 도로테 질레, 루이제 쇼트로프 공저,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성을 위한 성서연구」 정 용섭 번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9), 100-11쪽.

간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영원성과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설 수 없음을 암시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신이 인간에게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반역을 친히 끌어안으시는 연민과 고통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이 고통 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선포함으로써 증명된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다. 나는 분노로 너희에게 온 것이 아니다.”(호 11: 9) 이 사랑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신 속성이다. 이 사랑 안에서 인간과 땅이 회복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새로운 창조 질서가 약속된다. 그 땅 안에서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제사가 아닌 변함없는 충실한 사랑을 기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호 6: 6)고 선포한다.

6. 참고문헌

- 손 석태, 「이스라엘의 선민사상」 (서울: 성광문화사, 1991).
- 장 석정, 「하나님의 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브루그만, 월터, 「구약신학」 (류 호준/류 호영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3).
- _____, 「성경이 말하는 땅: 선물, 약속, 도전의 장소」 (정 진원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5).
- 첼레, 도로테/루이제 쇼트로프,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성을 위한 성서연구」 (정 용섭 번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9).
- Adler, E. J., “The Background for the Metaphor of Covenant as Marriage in the Hebrew Bible,” (Ph. D.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90).
- Braulik, G. O. S. B., *The Theology of Deuteronomy*, (U. Lindbald 옮김) (Dallas: BIBAL Press, 1994).
- Brueggemann, W., *Tradition for Crisis*, (Richmond: John Knox Press, 1968).
- Clements, R. E., *Prophecy and Covenant*, (Studies in Biblical Theology 43) (London: SCM Press, 1965).
- Cross, M., *From Epic to Canon: History and Literature in Ancient Israel*, (Baltimore/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8).
- Drinkard, J. F., “Religious Practices Reflected in the Book of Hosea,” *Review & Expositor* 90, no. 2 (Spring 1993), 205-217쪽.
- Fiddes, P. S., “The Cross of Hosea Revisited: The meaning of Suffering in the Book of Hosea,” *Review & Expositor* 90, no. 2 (Spring 1993), 175-190쪽.
- Fretheim, T., *The Suffering of God: An Old Testament Perspective*, (Overtures to Biblical Theolog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 Habel, N. C., *The Land is Mine: Six Biblical Land Ideologies*, (Overtures to Biblical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6).
- Heschul, A. J., *The Prophets*,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 1962).
- Jooster, J., *People and Land in the Holiness Code: An Exegetical Study of the Ideational Framework of the Law in Leviticus 17-26*, (Leiden: E. J. Brill, 1996).
- Pruess, H. D., *Old Testament Theology*, 2 vols., (The Old Testament Library), (Leo G., Perdue 옮김),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5).
- Smith, M., "The Common Theology of the Ancient Near East," *JBL* 71 (1962), 136-147쪽.
- Stuart, D., *Hosea-Jonah*, (WBC), (Waco: Word Books, Publisher, 1987).
- Wright, Ch., *God's People in God's Land: Family, Land, and Prophecy i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0).

검색어

호세아
 인간과 땅
 언약 파기
 하나님 페이스스
 하나님 사랑

투고일: 2008년 5월 10일
 심사일: 2008년 8월 11일
 게재확정일: 2008년 9월 5일

The People and Land in the Book of Hosea

Kyung-Hee Park

Lecturer at Korea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Ph.D.

This study investigates a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divine love which emanates from divine pathos, focusing on the exegetical interpretation of Hosea 2: 4-25[2-23], and 4: 1-19. The first focal point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ological implications involved the people and land in the book of Hosea. The second focal point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divine love which embraces the sinful people and the polluted land.

In Hosea's prophetic messages, Israel has forsaken YHWH and has sought help from other gods and other nations. The worship of YHWH is defiled and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him and foreign gods. The results of this lack of knowledge of God is that Israel failed in keeping and observing the divine law in the land. The people of YHWH have forgotten the values of conducting behavior as God's people. There is the superficial worship practice in the land: sacrifice and burnt offerings without acknowledging what God requires of the worshippers. Israel's constant rebellion by breaking the law and by worshipping idolatry has also polluted the land which God gave to his people as inheritance. Therefore, God suffers from the sinful people and the

polluted land.

However, divine compassionate love emanated from divine pathos toward Israel leaves room for reconciliation and restoration. On the basis of forgiveness divine compassion heals a broken relationship between YHWH and Israel. In divine pathos Hosea's prophetic messages bear divine passionate love. YHWH justifies his love with the statement: "I am God no human, the Holy One in your midst."(Ho 11: 9) This is essential for God's love in the divine holiness. This power of love emanating from divine suffering embraces the sinful people and the polluted land. This love creates a new relationship between YHWH and his people and renews a universal covenant between human and natural world(Ho 2: 20-25(18-23)).

Keywords

Hosea
People and land
Breaking a covenant
Divine pathos
Divine love